

‘전 종목 석권’ 韓 양궁, 공정 경쟁·세심한 지원 원동력

올림픽 최초 금 5개 ‘씩쓸이’

김우진·임시현 3관왕 달성
단체전 男 3연패·女 10연패
혼성 단체전 2회 연속 우승
실력 위주 선발·사전준비 꼼꼼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 파리에서도 그 명성을 드높였다. 대한민국 태극궁사들은 올림

픽 양궁 사상 처음으로 남녀 단체전과 혼성전, 개인전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따내며 전 종목 석권에 성공했다. 실력 위주의 공정한 선발 시스템과 대한양궁협회의 세심한 지원이 만든 성과다.

김우진(32·청주시청)은 지난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브래디 엘리슨(미국)을 상대로 6-5(27-29 28-24 27-29 29-28 30-30 10+-10)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 양궁은 남·여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여자 개인전에 이어 남자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따내며 사상 첫 올림픽 5종목 ‘씩쓸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최초로 4개 종목을 석권했던 한국은 8년 만에 두 번째



김우진과 이우석이 지난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시상식에서 각각 금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궁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한국 양궁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실력 위주의 무한 경쟁 선발 시스템이다. 학연과 지연을 따지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올림픽을 포함한 직전 대회 우승 경력이 있어도 우선 출전 자격은 없다.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서기 위해선 6개월간 총 5차례에 걸친 선발전에서 4000여명의 활을 쏘며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대한양궁협회의 세심한 지원과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한 몫하고 있다. 협회는 진천 선수촌에 파리 양궁장 경기장과 똑같은 세트를 설치해 스페셜 매치를 치르는 등 파리 현지 분위기를 미리 접하게끔 많은 신경을 썼다. 장내 아나운서 멘트, 관중 환호성, 소음 역시 사전에 녹음한 불어 및 영어 오디오를 틀어 현장 적응감을 높였다.

또 양궁장 광장이 센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 경기 여주 남한강 인근에서 바람 적응 훈련을 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다이빙은 물론 장마 속 축구장 소음 훈련, 혹한기 해발 1500m 산악 훈련 등 혹독한 훈련도 진행하며 철저하게 올림픽을 대비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전 종목 금메달을 수확했고, 2020 도쿄 대회에서 혼성 단체전이 추가된 5개 종목으로는 최초 기록이다.

김우진과 임시현(21·한국체대)은 단체전과 혼성전, 개인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임시현·남수현(19·순천시청)·전훈영(30·인천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팀은 단체전 10연패를, 김우진·이우석(27·코오롱)·김제덕(20·예천군청)으로 꾸려

진 남자 양궁팀은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김우진과 임시현이 호흡을 맞춘 혼성 단체전은 2연패를 일궈냈다.

남수현이 여자 개인전 은메달, 이우석이 남자 개인전 동메달을 추가해 한국 양

‘산악 최고참’ 신은철 “파리에서 죽을 각오로 도전하겠다”



2024 파리 올림픽 광주·전남 태극전사 <6·끝>

오늘 남자 스피드 예선 시드전
한국 신기록 넘어 메달 겨냥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중 유일하게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에 도전하는 신은철(더슬·노스페이스)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다졌다. 죽어도 파리에서 죽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우뚝 서겠다는 다짐이다.

신은철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인만큼 훈련했던 모든 기량을 뽐내내고 돌아오겠다”며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 있다. 죽어도 파리에

서 죽겠다는 생각”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신은철은 극적으로 이번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다. 지난 6월 열린 이번 대회 예선전 2차 대회에서 볼더링&리드(콤바인)의 이도현(서울특별시청·블랙야크)과 서채현(서울특별시청·노스페이스)에 이어 마지막 파리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는 “2018년 처음 국가대표에 뽑혔을 때는 리드가 주종목이었다. 2019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지고 2021년부터 스피드로 전향했다”며 “개인 능력은 특출나지 않지만 마음가

짐만큼은 특출하다고 생각한다. 늦게 종목을 바꿨지만 이번 대회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리드에서 스피드로 종목을 변경해 태극마크를 품은 만큼 신은철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훈련 과정에서 설정했던 목표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실제로 이 종목 한국 신기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신은철은 “사막에서도 설산에서도 훈련에 매진했다. 파리에서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혼자 전지훈련을 다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에서 새로운 장비와 시스템으로 훈련했고 이 덕분에 한국 신기록도 나

울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의 하계 올림픽 통산 3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을 꿈꿨다. 하지만 한국 선수단이 대회 초반부터 잇따라 메달 낭보를 전하면서 이 대신 메달 사냥을 목표로 있다. 신은철은 6일(한국 시간) 오후 8시로 예정된 예선 출전을 준비 중이다.

신은철은 “프랑스는 전지훈련은 물론 실전 경기도 많이 치렀던 곳이다. 자신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기를 펼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며 “첫 올림픽 무대에서의 메달을 이왕이면 금빛으로 장식하고 싶다.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겨보겠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한규빈 기자

◀ 한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신은철이 지난달 12일 전북 군산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미디어 데이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 태극전사들의 선전에 뿌듯”



파리에서 100년 만에 개최된 제33회 파리올림픽이 반환점을 돌았다.

우리 선수들은 연일 한국체육의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며 역대 최약체의 올림픽 선수단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고 있

다.

특히 전남 출신의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승전보를 올려주고 있어 전남체육회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롭다.

어제(한국시간 4일)는 안세영 선수의 준결승 경기를 응원했다. 안세영 선수는 세계랭킹 8위의 톤중(인도네시아) 선수를 상대로 2-1로 역전승하며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무려 28년 만에 결승에 진출하게 됐다. 결승전에서 허빙자오를 무찌르고 금메달을 획득해 대한체육, 대한배드민턴의 새로운 역사를 쓰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같은 종목의 김원호-정나는 조도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배드민턴 종목에서 2008년 베이징대회 이후 최고 성적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지난 3일에는 전남도청의 최세빈 선수를 포함해 윤지수, 전은혜, 전하영 선수가 힘을 합쳐 출전한 펜싱 여자 사브르팀은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한국 여자 사브르 펜싱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라는 기록을 남겨줬다. 화순의 딸 복싱의 임애지 선수는 한국 여자 복싱에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첫 선수가 되었다. 효자종목 양궁에서는 남수현 선수가 큰 기쁨을 안겨줬다. 단

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첫 출전에 첫 금메달을 획득한 남수현 선수는 개인전에서도 결승에 올라 활시위를 끝까지 최선을 다 해 당겨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모든 순간의 영광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되어, 시차가 맞지 않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뜯눈을 지새우며 열심히 ‘대-한국’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준 덕분이라 생각한다.

지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한 한국체육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에 따라가며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우수선수 지원 약화 등으로 전문체육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최저 순위와 최저 메달을 획득하는 등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고, 꾸준히 종합 2위를 유지하던 아시안게임에서도 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018년, 2023년 대회에서 계속 3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번 대회에 우리 선수들은 다시 한 번 한국체육의 비상을 위한 신호탄을 쏘았다.

그리고 우리 전남의 아들·딸들이 그 중심에 있어 굉장히 뿌듯하다. 대회 기간 열심히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전남체육회장으로서 한국체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겼다.